

#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일단 멈춤

### '심각한 경영난' 법인택시 '부활' vs 개인택시 '현 방식 유지' 시, 특정 시간대 도입 등 업계 의견 수렴한 뒤 시행 여부 결정

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택시업계를 돕고자 '택시부제' 부활에 나섰다. 정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택시부제를 반대하는 개인택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특정 시간대 택시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신청한 택시부제 시행 안전 심의가 최근 보류 의결됐다. 국토부는 광주시에 부제를 반대하는 개인택시와 도입을 주장하는 법인택시 간 이견 조율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와는 별개로 지난달 17일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국토부 훈령)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택시부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심의 의견과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택시 업계의 여론을 다시 수렴한 뒤 택시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는 2022년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해제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마저 심야 운영을 기피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용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택시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는 제한 없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기사 구

인난 등으로 기존처럼 6부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심각한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는 게 법인택시 업계의 하소연이다.

광주의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이 크게 늘면서 법인택시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법인택시 기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운행 시간이 자유로운 개인택시는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만 집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주-야간 쉽 없이 운행해야 하는 법인택시의 수익 구조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부제 부활을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개인택시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택시부제를 결정하도록 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만큼 택시 업계와 다양한 의견 조율 통해 합리적인 안을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기점소악도 베드로의 집.

## 여수 손죽도·고흥 연흥도·진도 관매도·신안 기점소악도 "전남 '가고 싶은 섬'서 휴가 즐겨요"

### 섬코디네이터 여행 코스 추천

전남도가 여름휴가 계획으로 설레는 직장인들을 위해 풍성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수 손죽도, 고흥 연흥도, 진도 관매도, 신안 기점소악도 등 '전남 가고 싶은 섬'을 방문을 추천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현지 섬 주민을 섬코디네이터로 양성해 가고 싶은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심되고, 행복한 여행을 선물하고 있다. 집집마다 여름휴가 만개한 휴가든 여수 손죽도, 작은 섬이 하나의 지붕 없는 미술관인 고흥 연흥도, 소나무와 함께 드넓은 바다를 품어 안은 진도 관매도 해수욕장, 걸어서 12km 순례자의 섬 신안 기점소악도 등 아름다운 가고 싶은 섬에서 섬코디네이터와 함께라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다.

여수 손죽도의 박근희 섬코디네이터는 "손죽도는 바다 위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집집마다 특색있게 정원을 가꾸고 있다. 여름 향기가 가득한 손죽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면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것"이라고 추천했다.

고흥 연흥도의 최완숙 섬코디네이터는 "탐방로가 숲과 바다로 이어져 있어 힐링하기 딱 좋다"고 소개했다.

진도 관매도의 함환중 섬코디네이터는 "해송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넓고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자랑했다.

신안 기점소악도의 김철수 섬코디네이터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숲에서 쉬며 12사도 건축물을 둘러보면, 더위도 잊고 재미도 쏠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정부에 수몰지역 주민 피해 대책 확대 요청

###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면담

전남도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과 관련, 수몰지역 최소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대폭 확대 등을 요청했다. (사진)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정부의 신규 기후대응담 후보지인 순천·화순·강진군과의 면담 자리에서 기후대응담에 대한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 복지 향상,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사는 "환경단체 등과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몰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개 및 서리 피해 대책,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기후대응담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주담을 찾아 순천·화순·



강진 시장·군수와 면담을 갖고 가뭄대책 및 향후 건설될 신규 댐 건설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기후대응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지역 현안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선정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공예품부터 수제 먹거리까지...광주공항서 '사회적경제마켓'

### 내년 1월 21일까지

광주시는 "광주공항 1층 특설 판매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사회적경제마켓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하는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열린다.

수공예품·액세서리·소형 원목 가구·수제 먹거리(오란다·누룽지·맥주) 등 광주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우수 제품을 판매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또는 회사다. 광주시 등은 2019년부터 5년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신장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광주공항 이용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판매전을 기획했다"며 "지역사회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세라믹산업 육성...미래 성장동력 확보

###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 산학연 등 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라믹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세라믹은 1095조원의 글로벌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로봇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선도할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분석,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세라믹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육성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의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후방소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7월 29일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목포대 산학협력단, 기획·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향 및 내용, 산업·정책 동향, 산학연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세라믹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세라믹산업이 전남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료 소재 다변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지원 건의와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